

전북대, 642억 반도체 특화단지 실증 거점

케미컬 테스트베드 구축·실증 총괄
2031년까지 구축·핵심 장비 도입
대학원생 등 200명 전문인력 양성
앵커기업 연계 소재 양산성 평가

전북특별자치도가 642억 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케미컬 특화단지로 선정된 가운데, 전북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첨단 소재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을 총괄하는 핵심 거점으로 나선다.

이번 특화단지는 익산 제3산단과 새만금산단을 코어 산단으로, 익산국가산단과 완주일반산단을 연계 산단으로 묶어 조성된다.

동우하이텍, OCI, PKC, 한솔케미칼 등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초고순도 세정·증착·식각 소재의 공급망을 완성하는 구조다.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첨단 케미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핵심 장비 8종을 도입한다.

연구소에서 기초 성능평가와 공정 실증을 거친 소재는 용인 트리니티랩과 연계해 최종 양산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연구소의 오픈랩 실습 체계와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연계해 오는 2031년까지 학부·대학원생과 재직자 등 현장 맞춤형

형 전문인력 205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임연호 반도체공동연구소 추진단장은 “기업이 보유한 소재 기술을 공정 검증과 양산 연계 단계까지 끌어올리

는 실증 거점 역할을 다하겠다”며 “장비와 데이터를 공동 활용해 전북이 반도체 소재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무주~대구 고속도로 에타 통과 한뜻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주~대구 고속도로 정책세미나에서 안호영 의원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9면)
<사진=전북자치도>

이지성 전북도 행정부지사 취임

“부서 넘어 원팀·속도·현장” 강조
“현장서 도민 체감 성과 창출할 것”



이지성 행정부지사

전북도 제46대 행정부지사에 이지성 신임 행정부지사가 28일 취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도청에 도착해 도지사에게 부임 신고를 마친 뒤 타임에 참석해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취임사를 통해 민선 9기 도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원팀 행정’, ‘신속한 의사결정’, ‘현장 중심 행정’을 핵심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부지사는 “민선 9기의 비전인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세계가 주목하는 대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서의 경계는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인 뿐 도민에게는 하나의 도청”이라며 “부서를 넘나드는 일은 직접 이어 붙이고

모든 공직자가 원팀으로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의 속도는 결정의 속도”라며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의 완료가 곧 현장의 완료는 아니다”라며 “정책의 성과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현장 중심의 도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성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고창 출생으로 전주시 덕진구청장, 전주시 기초국장,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사립대 적립금 12조... 절반은 10년 뒤에나 쓴다”

예치금 1조6,430억 비교금리 미달
“쌓는 만큼 쓰는 원칙 세워야”



한병도 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사립대학 적립금 12조원 가운데 5조 2천억원은 10년 안에 쓸 계획이 없는 돈으로 지급한 사람대학 현안 사업에 활용할 수 없는 자금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사립대학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긴 적립금 8조 3천억원 중 1조 6천억원은 평균 예금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예치, 자금 관리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 일반대 143교·전문대 117교의 2025회계연도 누적 적립금은 12조 2,358억원으로 1년 새 6,714억원(+5.8%) 늘어 사상 처음 12조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조 6,527억원에 그쳤다.

수원대(4,397억원)·호남대(2,154억원)·진주보건대(1,237억원)는 3년 안에 쓸 계획이 한 톨도 없고 사실상 전액을 10년 이상 뒤에 쓰겠다고 적었다. 성균관대(71%)·동덕여대(70%)·영남대(59%)·계명대(55%)도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이었고, 적립금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도 3년 안에 쓸 계획이 0원인 대학이 26교였다.

<2면에서 계속>

전주시, 착공 시한 넘긴 자광에 사업 취소 대신 협약 이행 촉구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이 협약에서 정한 착공 기한을 넘긴 가운데 전주시와 사업시행자인 자광이 사업 정상화를 놓고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광은 지난해 9월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사업시행협약에 명시된 1년 이내 착공 기한인 이날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협약에 따른 사업 취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외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기존 협약을 유지하고 자광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

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는 해당 협약의 성격이 행정목적과 공익을 위해 체결된 ‘공법상 계약’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협약상 착공기한을 근거로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자문 변호사 3명 가운데 2명은 불이행한 행정처분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 협약만을 근거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반면 1명은 공법상 계약인 만큼 협약에 따라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다수 의견에 따라 사업 취소보다는 기존 협약을 유지하면서

자광의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다만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동시착공·동시준공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광이 최근 전주시에 질의한 공동주택 동별 사용검사와 관련해서도 아파트를 먼저 준공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광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광은 이날 전주시에 동시착공 및 준공을 위한 관광타워 구조체 입면디자인 개선평안과 공사기간 등에 대한 기술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또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와 공사기간과 공사비 등을 조율하며 공식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광 관계자는 협약서상 동시착공·동시준공이라는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시공사와 정식 도급계약이 체결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 쟁점은 결국 착공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자광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냐로 모아진다.

특히 공동주택과 470m 규모 관광타워를 동시에 착공·준공한다는 기존 협약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자광이 제시한 시공사 선정과 자금조달, 공사기간 계획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경일 기자



전북 바다에 인공어초 1,291개…생산성 높인다

23억 투입 104ha 규모 조성

황경도·비안도·위도 3개 해역

인공어초 해역 어획 평균 3.7배

기존 어초어장 사후관리도 강화

전북도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군산 시 황경도·비안도와 부안군 위도 해역 104ha에 사각형 인공어초 1,291개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안 해역에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공간을 확충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공어초 해상 설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육상에서 제작을 마친 인공어초를 바지선과 크레인을 활용해 해역별 지정 위치에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3개 해역, 13개 단지다. 군산 해역에는 72ha 규모의 9개 단지, 부안 해역에는 32ha 규모의 4개 단지를 조성한다. 해역별로는 ▲황경도 32ha 400개 ▲비안도 40ha 491개 ▲위도 32ha 400개 등 모두 1,291개의 사각형 인공어초가 설치된다.

인공어초는 연안 해역에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시설이다. 어초 주변에 수산생물이 모여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 수산자원 증감과 어장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도는 1973년부터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까지 도내 연안 해역 1만8,299ha에 총 7만6,949개의 인공어초를 설치했다.

인공어초 설치에 따른 어획효과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도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최근 5년간 인공어초 설치 해역과 미설치 해역을 비교 조사



사각형 콘크리트어초 설치 사진

<사진=전북도>

한 결과, 설치 해역의 어획효과는 미설치 해역보다 평균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인공어초 설치와 함께 기존 어초 어장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군산·부안 해역 2,937ha를 대상으로 어초의 위치와 상태를 점검하고, 어획·부

착생물 효과조사와 어초에 걸린 해양폐기물 조사·수거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설치된 인공어초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향후 어초 설치와 어장 관리에 활용해 사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 개편 논의

29일 당정협의회 개최

광역단체장 참석 지방 의견 전달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 논의

지방재정 감소 우려 해소 모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미래대응기금 추진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

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내일 오전 8시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혜식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참석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전달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 현황과 지방정부 동향 등을 설명한 뒤 토론을 진행할 예정

이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기금 적립분이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될 경우 지방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 모색

전북研 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회
학령기~성인기 자립까지 맞춤형
조기발견·진로 등 6대 과제 제시
가족지원·전문인력 양성도 추진

전북도는 경계선지능인의 학습부터 진로·직업, 성인기 자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마무리하고 향후 지원방향을 구체화한다.

도는 28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평생교육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계선지능인의 생활실태와 평생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

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3월부터 전북연구원이 수행했다.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국내외 정책·지원사례, 도내 경계선지능인의 규모와 특성, 생활실태 및 평생교육 수요 등을 분석했다.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례를 통해 교육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도 살펴봤다.

분석 결과, 경계선지능인은 조기발견부터 학령기 교육, 진로·직업, 성인기 자립에 이르기까지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이 달라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에는 개인의 학습 속도와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과 사회성·심리정서 지원이, 성인기에는 진로설계와 직업역량, 사회적응 및 생활자립 등 실생활과 연계한 평

생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조기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진로·직업 및 자립지원 ▲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역 내 교육·복지·상담·고용기관 간 연계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평생교육·뇌과학 분야 학계 전문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관계자와 연구진 등이 참석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이번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도, 가을철 약수터 14곳 수질 안전 점검

47개 항목수질검사·현장점검 병행
지정 7곳·미지정 7곳 대상
기준 초과시 즉시 이용 중지 조치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주간 가을철 산행과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도내 지정·미지정 약수터 14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약수터 이용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지정 약수터까지 점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정 약수터 7개소와 미지정 약수터 7개소다.

지정 약수터는 전주 2개소, 군산 3개소, 완주·순창 각 1개소이며, 미지정 약수터는 전주 6개소와 완주 1개소다.

/김은지 기자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라늄과 여시니아균 등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약수터 주변 환경과 시설물 관리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약수터 주변 정경상태와 오염원 유무, 음용·배수시설 관리상태, 안내판 및 수질검사 결과 게시 여부,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약수터는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해 이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주변 오염원 제거와 청소·소독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이후 재검사를 통해 수질 안전성이 확인되면 이용을 재개할 계획이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가을철 산행과 야외활동으로 약수터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수질검사와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수입쌀 부정유통, 갈수록 기승”

올 상반기 적발 전년비 1.8배
일반음식점서 69% 집중 적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밥쌀용 또는 가공용으로 수입한 ‘수입쌀의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밥쌀용·가공용 수입쌀의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414건, 위반 물량은 1,117.7톤에 달했으며 적발 금액은 30억 1,076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저렴한 수입쌀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 비싼값을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쌀값 하락과 쌀 소비 감소로 신음하는 국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일반 수입쌀(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의 경우,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에만 적발 건수가 58건(10.2톤, 7,768만 원)에 달해 2025년 한 해 전체 적발 건수(32건)를 이미 1.8배나 높게 나타났다. 2024년과 2025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수입밥쌀 판매 물량 부정유통’ 역시 올 상반기에만 11건(1.7톤, 1,174만 원)이나 다시 터져 나왔다. 업종별로는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일반음식점과 음식료 제조업 등 원산지 위반이 집중됐다. 2026년 상반기 적발된 수입쌀 부정유통



윤준병 의원

58건 중 일반음식점이 40건(69.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처분 유형별로도 적발 건수의 70.5%(353건 중 249건)가 고의성이 짙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확인되어 사법당국에 형사임건됐다.

가공용 수입쌀의 불법 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은 61건, 881톤이 적발되었으며,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미표시한 행위 외에도 떡류제조업 등에서 허가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부정 유통한 ‘지정용도 외 사용’ 행위까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값싼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행위는 우리의 국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윤 의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통관부터 보관, 가공, 유통,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촘촘한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상시적인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부안군 공고 제2026-1604호

2035년 부안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2035년 부안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부 안 군 수

1. 공청회 개최목적

- 2035년 부안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10. 12.(월) 11:00
- 장 소 : 행안면사무소 2층 회의실(부안군 행안면 번영로 33, 2층)

3. 부안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의 개요

- 목표연도 : 2035년
- 계획면적 : 307,691.4㎡(행안면 공업지역, 계화면 준공업지역)
- 상세내용 : 2035년 부안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게재선평략

4. 공청회 참석대상 : 부안군민, 기관·단체, 관계 전문가 등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또는 공청회 종료 후 서면으로 제출
- 서면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12.(월) ~ 10. 26.(월)
 - (제출방법) 서면 의견서를 방문 제출 또는 우편(당산로 91, 4층 새만금도시과), 팩스(063-580-4454), 전자우편(kimnr3469@korea.kr)으로 제출

6. 문의사항 :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063-580-47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은 행정절차 이행과정(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전북 ‘정원 밖’

전북 4,139명 모집에
4,454명 신청…
접수율 107.6%

4년 만에 부활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전북지역 신청자가 배정 인원을 300명 이상 웃돌면서 일부 임산부가 추첨 과정에서 탈락할 처지에 놓였다. 임산부 건강과 친환경농가 판로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과 지역별로 다른 모집 방식 때문에 거주지와 신청 시기에 따라 혜택

이 갈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모집 인원은 4,139명으로, 4,454명이 신청해 107.6%의 접수율을 기록했다. 배정 인원보다 315명이 많아 추첨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은 지난 5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68일간 신청을 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긴 모집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정원을 초과했다. 임산부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전국적으로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세종은 1,000명 모집에 1,421명이 신청해 142.1%로 가장 높은 접수율을 기록했고 울산도 126.7%에 달했다. 반면 광주는 69.4%, 제주는 76.7%, 전남은 78.3%에 머무는 등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은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신청 방식도 제각각이다. 대부분 지역이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남은 선착순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모집기간 이후 임신을 확인한 임신부나 추첨·선착순에서 탈락한 대상자는 지원받기 어

려운 구조다. 사업비가 국비 40%, 지방비 40%, 지방담 20%로 구성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임산부에게는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되며 이 가운데 4만8천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신 의원은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이 갈리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비 매칭 비율을 높이고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축산농가 ‘구급차 진입로’ 미리 확인하세요

국립축산과학원, 응급
상황 가정 대응 훈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2일, 외부인과 차량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가축사육구역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가축사육구역 내 응급환자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방역 체계로 인해 구급대의 진입이 지체될 수 있는 축산업 특성을 고려해 환자 발견부터 신고, 상황전파, 구급 차량 진입 과정을 점검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우사 작업 직원이 폭염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을 실전과 동일하게 가정, 최초 환자 발견과 119 신고를 시작부터 △내부 상황 전파 △구급 차량 진입로 확보 △방역 출입문 개방 △구급대 현장 안내 △환자 응급처치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현장 대응체계를 객관적으로 담기 위해 신체 부착식 카메라(보디캠)를 설치해 구급대 도착부터 현장 진입, 환

자 이송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기록했다. 이후 수집된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 단계별 미비점을 분석해 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농가에서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 농장 도로명주소와 출입구, 주요 작업장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둘 것을 당부했다.

구급차량이 축사까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와 출입문 개방 방법을 확인하고, 열쇠나 원격조종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자와 출입문 개방자, 구급 차량 안내자 등 역할도 미리 정해 두도록 권고했다.

만일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환자 상태와 농장 위치, 진입 가능한 출입구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혼자 두지 말고, 119 상황 요원의 안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작업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혼자 작업할 때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작업 장소와 예상 작업 시간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농장 방역은 철저히 유지하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2일, ‘가축사육구역 내 응급환자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농진청>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 구조와 이송이 늦어지지 않도록 구급 차량 진입 절차와 사후 소독 방법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방법도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훈련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축사육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응급 상황별 대응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응급환자 발생 시 황금시간(골든타임) 내 구급대가 환자가 있는 곳까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열고 이동 경로를 안내해야 한다”라며 “농장 여건에 맞는 비상 연락망과 역할 분담, 구급 차량 진입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 새만금 에너지기업 키운다

새만금 에너지산업 지원
센터 입주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6일까지 재생에너지 혁신 거점인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에너지 분야 유망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새만금에 집적된 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간 협력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연구개발업(M70)과 엔지니어링 및 기

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및 연관 산업 기업·기관이다. 입주기업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입주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최대 7년간 입주할 수 있다.

군산시 새만금산단3로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건축연면적 5,844㎡,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2024년 9월 개소했다.

센터에는 기업 입주공간을 비롯해 회의실, 세미나실, 다목적강당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현재 총 19개 입주공간 중 16개실에 12개 기업·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이번

모집을 통해 잔여 3개실의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에는 연구개발(R&D), 기술 컨설팅, 제품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센터가 위치한 새만금 2공구 일대에는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와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등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이 집적돼 있어 연구개발과 기술 실증, 기업 간 협력에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모집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고, 입주기업 간 협업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

화해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 또는 도,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 특화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산업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며 “유망한 에너지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모집 및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사진=NH농협 익산시지부>

NH농협 익산시지부 고향사랑 ‘한마음’

익산시에 2,500만원 전달

NH농협 익산시지부 임직원들이 고향사랑의 마음을 한데 모아 익산의 발전을 응원했다.

익산시는 28일 익산시청에서 최정호 익산시장과 진현욱 NH농협 익산시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NH농협 익산시지부 임직원들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2,5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금은 NH농협 익산시지부 임직원들이 익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해 온 농협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정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농심천심(農心天心), 농업인의 마

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뜻처럼 농업과 지역사회를 향한 진심을 담은 이번 기부가 익산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현욱 NH농협 익산시지부장은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익산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심천심의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익산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정호 시장은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소중한 기부금을 전달해 주신 NH농협 익산시지부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기부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 기업이 원하는 직무훈련, 수요 조사

10월 8일까지 접수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가 내년도 직무훈련 과정에 전북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계획 접수에 나섰다. 접수 기간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이며, 대상 사업은 ‘2027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중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운영되는 유형이다.

전북인자위는 올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최근 3년간 지역에서 운영된 훈련과정의 공급 현황을 함께 분석했다. 이번 사업계획 접수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직무훈련을 내년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접수 대상은 올해 9월 현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지역 공동훈련센터다. 공동훈련센터는 여러 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훈련시설을 갖추고 직무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참여를 원하는 센터는 재직자와 채용예정자를 위한 훈련과정, 운영계획, 시설·장비 현황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인자위는 접수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훈련과정과 운영 인프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에 추천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운영된다.

전북인자위 관계자는 “기업의 훈련수요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설되는 훈련과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동훈련센터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훈련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인자위가 별도로 공고하는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신협중앙회, 2027년 신입직원 공개 채용

신협중앙회(회장 고영철)가 2027년도 신입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분야는 △일반직군(여신지원·관리, 수신지원, 경영지원, 검사·감독, 자금운용, 공제, 기획·총무) △IT직군(IT개발·관리)이다. 이 가운데 IT직군 지원자의 경우 정보처리기사 또는 C·JAVA·SQL·RDB(Oracle/Tibero)·시스템·N/W·보안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필수로 보유해야 한다.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이 기졸업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단, 신협중앙회 인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접수는 28일부터 오는 10월 7일 오후 6시까지 신협중앙회 채용 사이트(cu2.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30일 오전 10시 이후 채용 사이트에서 발표 예정이며, 필기시험은 11월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된다.

/최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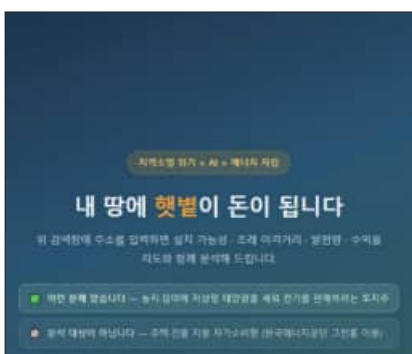
LX공사, 태양광 AI 입지분석 서비스 오픈

조례·발전량·수익
안전정보까지 한 번에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주소 입력만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여부부터 예상 수익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자체 개발하고 22일 국민에게 오픈한 AI 서비스 ‘짱하고 해뜰날’(https://land.lx.or.kr/solar)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태양광 사업 검토를 주소 하나로 알아볼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을 원하는 국민은 해당 서비스에 주소를 입력하면, 토지의 지목·용도지역부터 지자체 조례, 전력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계통 여유용량, 연간 발전량, 투자 회수 기간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이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 일일이 기관마다 따로 찾고 분석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해당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서

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 조례를 자동 적용해 이격거리·용도지역 등 설치 가능 여부를 즉시 판정 △일사량·경사·음영 분석으로 연간 예상 발전량을 산정 △전기 판매 수익과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반영한 3가지 시나리오별 예상 수익과 투자 회수기간 △한국전력 전력 연계 가능 여부 등이 다. 분석 결과는 PDF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다.

‘짱하고 해뜰날’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 AI협업인 해커톤 대상 수상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수상 이후 두 달 만에 공간정보·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해 실제 서비스로 구현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서비스 오픈에 앞서 기관간 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

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보유한 태양광 전기설비 검사사례를 분석해 안전점검 유의사항을 서비스에 반영했고, 나주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현장검증을 거쳐 실제 활용성도 끌어올렸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재학 기획혁신본부장은 “해커톤 수상 아이디어가 두 달 만에 실제 국민 서비스로 구현된 것은 공사 인공지능(AI) 혁신 역량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공간정보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짱하고 해뜰날’서비스는 LX공사 홈페이지(lx.or.kr)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kesco.or.kr)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학교, 기업 맞춤형 AI 실무 교육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임직원 대상 업무 자동화 등 실습 진행

전북대학교가 지역 연고 기업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실무 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대 RISE사업단은 지난 1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익산공장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AI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양 기관의 산학협력 협약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제

직자가 AI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디지털 전환(DX)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실무 활용도를 고려해 기본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AI 기반 업무 자동화 기법을 비롯해 AI 에이전트 구축 및 활용, 최신 개발 방식인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등이다.

장태일 RISE사업단장은 “대학의 전문 지식과 기업 현장의 수요를 결합한 지·산·학 협력 사례”라며 “기술 협력은 물론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가 지역 연고 기업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실무 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북대>

전북과학고 ‘영재학교’ 전환 도민 의견은?

내달 2일까지 인식조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과 학교고등학교의 카이스트(KAIST) 부설 영재학교 전환 공모를 앞두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내달 2일까지 도내 교직원과 학부모, 도민을 대상으로 ‘전북과학고의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전환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파악해 향후 공모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설문 내용은 영재학교 설립 필요성과 공감도, 과학고 이전·신설 시 검토 사항, KAIST 인프라 연계

방안 등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 정원의 최소 30%를 지역인재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 비율도 함께 묻는다.

전북교육청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려 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모 절차에 반영할 방침이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전환은 지역 미래 과학기술 인재육을 키우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2026 군산 찜뽕페스티벌’ 내달 9일 개막

9~11일 스타 셰프 협업 콘텐츠 등 볼거리 풍성

군산시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장미동 백년광장 일원에서 ‘2026 군산 찜뽕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군산은 명실상부한 전국 대표 찜뽕 도시다. 1970년대 초 화교들이 돼지·소·닭 뼈 육수로 끓여내던 ‘초마면’에 항구 도시 특유의 신선한 해산물과 고춧가루가 더해지면서 오늘날 군산만의 찜뽕 문화로 발전했다.

군산시는 이러한 지역의 음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미식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찜뽕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공연을 마련하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해 군산의 음식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축제장에는 관내 전통 중식당과 셰프 협업 콘텐츠를 비롯해 총 20개 부스가 운영된다. 고기찜뽕과 해물찜뽕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군산 찜뽕의 다채로운 맛과 매력을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린다.

특히, 스타 셰프들이 선보이는 특별한 미식 콘텐츠가 눈길을 끈다. ‘냉장고를

부탁해’의 미카엘, ‘흑백요리사’의 데이비드 리와 이미영 셰프가 참여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모든 중식 판매 부스에서는 찜뽕과 짜장면을 ‘0.5인분’ 단위로 판매해 방문객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여러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찜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도 마련된다. △철가방 삼형제 △보글보글 찜뽕탕 △K-관광섬을 이겨라 △K-관광섬을 뽐아라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저녁 시간에는 프리미엄 프로그램인 ‘찜뽕레스토랑’을 운영해 공연과 함께 축제의 밤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축제장 인근의 찜뽕특화거리와 연계한 미식관광도 추진한다.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빈해원 등 오랜 전통을 가진 중식당과 다양한 맛집을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축제장과 지역 상권이 상생하는 미식관광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2026 군산 2026 군산 찜뽕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 찜뽕 페스티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국립군산대학교가 지역 산업체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실무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도 차세대 공학자 양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사진=군산대>

완주나잇 소양고택편 ‘성황’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지난 26일과 27일 소양고택과 두베카페 일원에서 진행한 ‘2026 완주나잇(Wanju Night) 소양고택편’ 1·2회차에 방문객 50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완주나잇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완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모집해 지역 관광공간과 매칭하고 문화예술 콘텐츠를 관광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역 예술인에게는 관광공간을 새로운 활동 무대로 제공하고, 관광공간에는 특색 있는 콘텐츠를 더해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관광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1·2회차에서는 소양고택의 드라마 촬영 이야기를 만나는 도슨트 해설을 비롯해 문화예술 공연과 완주 관

광상품 기획전 완주한권 등이 운영됐다.

특히 이번 공연은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완주 활동 예술인과 소양고택·두베카페를 매칭해 마련됐다. 해금과 바이올린이 어우러진 크로스앙상블 팀 해인과 감성적인 재즈 공연을 선보인 재즈듀오 글로이가 참여해 관광공간의 분위기과 어우러진 공연을 선사했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완주문화관광재단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문화관광재단 유희태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방문객의 체류뿐 아니라 지역 관광상품 소비로도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완주의 공간과 사람, 문화예술, 로컬상품을 연결하는 관광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국제도예작가 기획초대전’ 개최

400여 년 전 남원에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이어진 도자의 맥이 다시 남원으로 돌아온다.

제15회 남원국제도예작가 기획초대전이 28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흙의 울림, 세계를 잇다(Resonance of Clay, Connecting the World)’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계 11개국 128명의 국내외 도예작가가 참여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도예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일본 가고시마의 15대 심수관과 아리타의 14대 이삼평이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400여 년 전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 도자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조선 도공의 역사와 정신이 오늘날의 계

승자들을 통해 다시 남원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번 기획초대전은 단순한 국제 작품전을 넘어 남원이 간직한 도자문화의 역사성을 되새기고, 이를 세계 현대도예와 연결하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마련된다. 각국 작가들은 ‘흙’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조형 세계를 선보이며 도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공유한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4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이어진 도공의 정신이 다시 남원에서 세계 도예인들과 만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전시가 남원의 도자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대, 차세대 공학자 15개 팀 출범

“지역 기업 기술 난제 푼다”

국립군산대학교가 지역 산업체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실무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도 차세대 공학자 양성사업’을 본격화한다.

국립군산대 차세대 공학자 양성사업단은 지난 23일 교내 체육관 웰니스홀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15개 학부 연구팀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학부연구팀이 산업계 문제해결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교육·연구의 현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국립군산대는 부산대, 국립부경대, 국립목포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1

단계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단은 심사를 거쳐 지역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 12개 팀, 대학 간 연합연구 1개 팀, 다전공 융합 연구 2개 팀 등 총 15개 팀을 선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민철 사업단장의 연구팀 운영 안내와 팀별 연구 주제 소개에 이어 한국이공학진흥원 관계자의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연구실 안전수칙과 인공지능(AI) 연구 윤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노트 작성법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다뤘다.

국립군산대 사업단은 앞으로 학생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성과 점검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건조한 가을, 불씨 하나도 조심하세요

가을철 산불 예방

1

불법 쓰레기 소각 금지

2

취사 금지구역에서 취사 금지

3

산에서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4

산불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익산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마음돌봄' 지원

익산시가 아동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건강하게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시는 28일 익산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1명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지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자기돌봄 역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아동을 돌보는 종사자들이 자신의 마음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종사자들이 건강한 정서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복지정책 확정 앞두고 주민 의견 수렴

정읍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공개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제6기 정읍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는 △지역의 복지 여건과 전망 분석 △향후 4년간의 복지 목표와 핵심 전략 △새부 사업 추진계획과 재정·인력 운용 방안이 담겼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지역의 복지 환경과 시민의 복지 수요를 살펴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민과 기관·단체는 정읍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계획안을 읽어볼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접수 기간은 10월 4일까지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정읍시의회 보고를 거쳐 10월 초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향후 4년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가을밤, 빛으로 깨어난 익산 미륵사지…21만 명 찾아

익산 미륵사지의 가을밤을 밝힌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역대 가장 많은 21만여 명의 발길을 모으며 24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익산시는 이달 4일부터 27일까지 열린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익산 미륵사지’에 21만 4,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021년 첫 개최 이후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았다. 직전 행사인 2024년 약 16만 명보다 5만여 명이 늘면서 야간 문화관광 콘텐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행사는 ‘왕도의 시간, 빛으로 물든 왕도가 깨어나는 시간’을 주제로 미륵사지의 역사와 공간적 가치를 첨단 미디어 기술과 예술로 재해석해 선보였다.

가장 눈길을 끈 콘텐츠는 사라진 미륵사 목탑을 약 30m 규모의 대형 미디어파사드로 구현한 ‘Reborn: 목탑의 귀환’이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은 목탑의 모습을 빛과 영상으로 재현해 백제시대 미륵사의 모습을 상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미륵사지의 독창적인 ‘3탑 3금강’ 공간도 거대한 미디어아트 무대로 활용됐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이야기를 빛과 영상으로 풀어내고, 동·서 석탑을 활용한 레이저 아트쇼와 야간경관을 선보였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미디어아트는 미륵사지의 역사와 첨단 미디어 기술을 결합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자리였다”며 “행사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미륵사지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2(題)

ICT 유망기업 거점 마련

익산시가 자율주행과 로봇, 스마트농업 등 미래산업을 이끌 ICT 기업 유치에 나서며 지역 산업 생태계를 넓혀간다.

익산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TYM ICT, ㈜엑스업, ㈜대성농업기계, 팜큐베이터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TYM ICT와 ㈜엑스업, ㈜대성농업기계는 AI 디지털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익산에 새로운 사업 거점을 마련한다. 팜큐베이터 역시 공유오피스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사업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 기업들은 자율주행과 로봇, 농업기계, 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TYM

ICT는 농기계 텔레매틱스와 자율주행 단말기, ㈜엑스업은 필드용 로봇과 통합관제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성농업기계는 피복기·파종기 등 농업용 기계를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팜큐베이터는 스마트팜 온실 환경제어시스템을 개발하는 스마트농업 기업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자율주행과 로봇, 스마트농업 등 미래산업 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들이 익산에 새로운 사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들이 익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이 갖춘 산업·실증 기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산업 투자 유치

익산시가 제2일반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우신세이프티시스템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우신세이프티시스템은 자동차용 안전벨트 등 자동차 안전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특히 생산 제품의 80%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는 수출 중심 기업으로,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신세이프티시스템은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유희부지를 매입해 3년간 총 727억 원을 투자하고 신규 생산시

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34명을 신규 고용하고, 협력업체 등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약 2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와 기업지원 사항을 살펴보고, 지역 자동차부품과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기존 산업단지 내 유희부지를 새로운 생산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도 크다.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하면 제2일반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모집

10월 20일까지 접수…

만기 시 1,296만 원 목돈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오는 10월 20일까지 ‘2026년 군산시 청년재직자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고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재직자 협업형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근로자 10만 원, 기업 8만 원을 적립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만 원, 군산시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간 운영된다. 만기 시 1,296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명이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군산시에 소재한 3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핵심인력)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www.sbcplan.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군산시청 누리집(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은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이 우수한 핵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다이로움, 구매·보유한도 조정

10월부터 구매 30만 원 보유한도 100만 원으로

익산시는 10월부터 다이로움 월 구매한도를 기존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보유한도를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시민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충전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을 충전하면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정은 현재 다이로움 발행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확보한 인센티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

상황에 따라 결정됐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10% 인센티브 지급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보유한도 역시 100만 원으로 조정해 과도한 충전금 보유를 줄이고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일 이전 이미 100만 원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에는 추가 충전이 제한되며, 사용 후 잔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면 다시 충전할 수 있다.

시는 예산 집행 상황과 다이로움 발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올해 10% 인센티브 지급은 종료되며, 예상 시점은 다이로움 앱과 익산시 누리집, 사회관계

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변경된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는 올해 10% 인센티브 지급 종료 시까지 적용된다. 2027년도 구매·보유한도 등 운영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다이로움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조정하게 됐다”며 “10% 인센티브는 유지하면서 예산 집행 상황과 발행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지급 종료 시점도 사전에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미디어아트 등 야간 관광지 도약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고군산군도를 낮과 밤이 모두 매력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39일간 개장한 선유도해수욕장은 18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역대 최다 방문객을 기록했다. 오션팔레트 개장과 고군산섬이길 개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유도의 관광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하지만 관광객이 집중되는 낮과 달리 야간에는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부족해,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데 한계

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고군산군도를 ‘보고 떠나는 관광지’에서 ‘밤까지 머무는 관광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을 갖춰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이를 실질적인 이익 소비 확대로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58억 원(도비 28억 원, 시비 3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주간의 자연경관 중심 관광에 머물렀던 고군산군도에 고군산만의 이야기를 담은 빛과 미디어 콘텐츠를 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유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고군산 해양문화 스토리텔링형 영상 콘텐츠 제작 △명사십리 아트형 미디어맵

핑 연출기반 설치 △도보관광형 인터랙티브 조명환경 조성 △야간 포토존 조성 △주요 보행구간 야간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명사십리·솔섬 구간에는 고보조명과 바닥조명, 침터형 야간 포토존 등 도보관광형 조명환경을 조성하고, 명사십리 일원에는 프로젝션 맵핑과 서치라이트 등을 활용한 미디어 연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야간경관과 미디어아트, 체험형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군산군도를 서해안 대표 야간 관광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특별전

‘만세 뒤에 남은 기록’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29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군산3·1운동 100주년기념관에서 기획전시 ‘만세 뒤에 남은 기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19년 군산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재판과 수감 과정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서 소개되는 판결문과 수형기록은 당시 일제가 독립운동을 가를 처벌하고 통제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들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군산 3·1운동과 그 탄압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자료이자, 독립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름과 행동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군산 3·1운동을 거리에서 펼쳐진 만세시위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 이어진 재판과 수감의 과정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제 판결문과 수형기록



〈사진=군산시〉

을 직접 살펴보면서 식민지 사법제도와 독립운동의 관계를 보다 쉽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계자는 “3·1운동의 만세 함성은 거리에서 멈췄지만, 그날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과 행동은 기록 속에 남아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판결문과 수형기록에 남겨진 군산 3·1운동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고, 그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태인·용동 잇는 길목 회전교차로 설치

사고 예방 기대

정읍시가 역주행 등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용동면 오성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용동면 오성리에 있는 이 교차로는 태인면과 전주 방면 국도 1호선, 용동면으로 통하는 길목으로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잦다. 기존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역주행이 자주 발생해 사고 우려가 컸다.

시는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들여 지난 6월 공사를 시작하고 9월 18일 마쳤다. 공사에 앞서 도로교통공단, 정읍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여건

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새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한 방향으로 돌아 나가도록 해 역주행을 막고,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도록 설계됐다. 시는 사고 위험이 줄고 차량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운데 교통섬에는 밤에도 운전자가 교차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발광 다이오드(LED) 시선유도등을 설치했다.

이학수 시장은 “사고 우려가 큰 구간을 미리 개선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로를 꾸준히 점검하고 정비해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청년뜰, 청년 구직자 면접비 지원

취업 준비 비용 부담 경감

군산시 청년뜰은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 관내 기업 면접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등 비용 부담을 경감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관외 청년 인재의 지역 유입과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된 사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소재 사업장에 면접을 응시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구직 청년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회 5만 원으로, 보다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1회만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면접을 응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산시 청년뜰 누리집(jsyouth.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실제 이동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인공지능(AI) 면접이나 비대면 화상 면접, 취업박람회 등 현장 면접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 30시간 미만 또는 근무 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 면접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서식은 군산시 청년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 청년뜰 대표전화로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가을배추·무 병해충 적기 방제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가을 배추·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생육 상태를 살피고 병해충을 초기에 방제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배추는 높은 기온으로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해충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고온이나 가뭄이 이어질 때는 뿌리가 잘 내리고 초기 생육이 원활하도록 수분을 알맞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는 본잎이 1~2장 나올 때부터 6~7장이 될 때까지 튼튼한 포기만 남기고 제때 솎아줘야 한다.

병해충은 첫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히 방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작

용 방식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사용하고, 해충이 숨기 쉬운 잎 뒷면과 생장 점에도 약제가 충분히 닿도록 뿌려야 한다. 병든 포기는 발根 즉시 뽑아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 등록 약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배추로를 정비하고 작물 사이로 바람이 잘 통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추는 옮겨 심은 뒤 15일 간격으로 2~3차례 웃거름을 주고, 배추와 무 모두 토양 수분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살펴야 한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예찰과 기술 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확대 속도

스마트빌리지 공모
3년 연속 선정…
내년까지 130개소 구축

부안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7년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3년 연속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국비 11억 4700만



권익현 군수

스마트경로당은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체조, 요가 등을 지원하며 건강 장비(혈압계, 체온계, 체지방 측정기)를 도입

원을 포함한 16억 3800만원을 지원해 오는 2027년까지 총 13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경로당은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체조, 요가 등을 지원하며 건강 장비(혈압계, 체온계, 체지방 측정기)를 도입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군은 현재 4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청년농, 첫 수확 멜론 나눔 실천

스마트팜단지서 재배한
농산물 지역과 나눠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에 입주한 서로서로농장(장기영·서동호)이 지난 23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멜론을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에 전달한 멜론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첫 수확의 기쁨을 지역 아동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들은 지난해 고창군으로 귀농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에 입주한 후 처음으로 농사에 도전했다.

스마트팜에서 멜론을 정성껏 재배해 첫 결실을 맺었으며, 수확한 멜론 일부를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청년농업인들은 “직접 키우고 수확한 멜론을 지역 아이들과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청년농업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에 입주한 서로서로농장이 지난 23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멜론을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사진=고창군>

고 말했다.

오성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농업인들이 첫 농사의 결실을 지역사회와 나눠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고창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시설을 임대해 영농 경험과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강화

지역사회 협력 캠페인 전개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낙훈)은 28일 고창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26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교외생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과 예방의식을 높이고, 교육지원청·학교·경찰·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고창교육지원청, 고창중학교, 고창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고창폐트돌봄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홍보활동과 생활교육을 진행하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에 뜻을 모았다.

특히 어깨띠와 현수막 등을 활용해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예방 홍보 물품을



<사진=고창군>

배부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처 방법, 건강한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학교 주변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순찰 및 학생 안전지도도 병행했다.

김낙훈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공약관리에 시민주권 더한다

민선 9기 공약이행평가단 첫 회의

김제시가 28일 민선 9기 공약이행평가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의 시각과 현장의 의견을 더한 공약 확정에 본격 나섰다.

이번 회의는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16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동안 부서별 검토와 조정을 거친 공약안을 함께 살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민선 9기 공약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단장과 부단장을 선출한 뒤, 민선 9기 공약 준비 경과와 9대 분야 61개 공약안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재원계획 등을 설명했다.

공약안에는 △첨단산업 혁신거점

김제,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새만금 메가 관광벨트 조성 △농가소득 성장(UP) 365 프로젝트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어르신 행복동행 지원(어르신 간병비, 손주돌봄) △우리아이 입학축하금 등 미래 성장기반부터 시민 생활과 맞닿는 사업까지 폭넓게 담겼다.

시는 이번 공약 확정을 바탕으로 사업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정성주 김제시장은 “민선 9기 공약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김제의 미래를 함께 담기 위해 고민했다”며 “공약의 가치는 발표할 때보다 지켜가는 과정에서 증명되는 만큼,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제출

부안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3호에 대해 오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상가계약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공간부터 프로그램
안전까지 종합 확인

김제시는 28일 벽골제 일원에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현장상황 보고회를 열고 축제 개막을 앞둔 최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성주 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과 관계부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제장 전반을 둘러보며 프로그램 운영 준비상황과 시설물 설치상태, 관람객 이동동선, 편의시설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각 프로그램의 운영 여건과 주요 시설물 배치, 행사장 안내체계를 살피고 관람객 밀집이 예상되는 구간과 주요 이동동선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개·폐막식과 주요 공연 등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대비해 쌍룡

광장 주변 혼잡구간 관리와 필요시 일방통행 유도 방안,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확인했으며, 안내소 확대 운영과 외국어 병기 안내물, 다국어 QR, 동역 지원, 수유실과 저상 셔틀버스 등 방문객 편의시설을 비롯해 노점상 단속 및 바가지요금 관리, 식품위생, 행사장 청결 등 전반적인 수용태세도 함께 살폈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축제장 공간도 현장에서 함께 확인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키즈파크, 짬을 활용한 놀이공간인 짬 테마파크, ATV, 디스코팡팡 등 활동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레저월드, 휴식과 체류를 위한 플래니존을 마련했으며, 씨리공이 빌리지에는 김제 쌀과 세계 각국의 쌀음식을 선보이는 세계 쌀음식 거리를 구성했다.

또 논체험장에서는 벼베기·탈곡·도정·지게·새끼조기·가마니 등 농경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놀이와 휴식, 먹

거리, 농경체험이 축제장 곳곳에서 어지도록 했다.

시는 이날 점검 결과를 부서별로 공유하고 남은 준비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개막 준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 시장은 “축제 개막을 앞둔 마지막 점검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고, 프로그램 운영부터 이동 동선, 편의시설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올해 새롭게 구성된 공간과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에게 충분한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미비한 사항은 개막 전까지 보완하고 마지막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벽골제와 시내권 일원에서 'K-농경문화; 지평선에서 빛나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며, 5개 분야 62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제25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교통통제 실시

김제시는 제25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가 오는 10월 3일 토요일에 개최되며 일부구간을 교통통제한다고 밝혔다.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는 김제시가 주최하고 김제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는 갈수록 뜨거워지는 런닝 열기로 역대 최대인원인 5,285명의 전국 마라톤 동호인이 참가하며, 하프(21.0975km), 10km, 5km 종목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이번 대회 중 김제시민운동장에서 출발해 만경삼거리(삼북주유소)에서 반환해 돌아오는 코스(하프)로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대회 당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하프와 10km구간인 시민운동장↔서암사거리 한쪽(부안)방향, 서암사거리↔만경삼거리 구간 양방향, 후석삼거리↔서김제 IC 입구 200m 한쪽 방향을 통제하고, 5km구간인 문화체육공원길차로(김제시민운동장 입구)↔김제온천사거리 양방향을 통제하며, 마라톤 최종주차 통과 후 순차적으로 통제를 해제한다.

또한 대회 당일 교통경찰, 김제행정동우회 등이 교차로와 도로변에 배치돼 교통통제 안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힘을 예정이다. 더불어 시와 김제스포츠클럽은 교통통제 안내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통제 관련 내용을 홍보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당일치유 고창갯벌 청년캠프’
성로… 심과 치유의 시간 가져

고창군은 지난 27일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일원에서 청년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일치유 고창갯벌 청년캠프’ 1회차를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트랙터를 타고 죽도에 들어가 암반갯벌 해변에서 ‘섬크닉’을 즐겼다. 이어 감정카드를 활용한 스펀트토크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심잉불의 울림을 느끼며 지역 식재료로 비빔밥을 완성하는 ‘만다라 비빔밥 먹기 명상’을 진행했다.

이후 갯벌식물원에서는 ‘사운드워킹’을 통해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고, ‘바다 향기, 록’에서 자신만의 명상 향기를 만들어 감정과 생각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베스’를 통해 탁 트인 갯벌 풍경 속에서 자연의 소리와 명상 악기의 울림을 감상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갯벌 체험을 넘어 자연의 소리와 향기, 풍경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운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이번 캠프가 청년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창갯벌의 풍경과 소리를 온전히 느끼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변산면, 주민이 직접
뽑은 친절공무원 표창

부안군 변산면은 주민들의 따뜻한 후원으로 선정된 2026년 3분기 친절공무원 3명을 표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변산면 친절공무원 제도는 면민이 직접 친절한 직원을 추천해 선발하는 주민참여형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변산면은 이번에 선정된 3명의 공무원에게 표창 전달과 함께 반부패·청렴 의지를 다지는 청렴 캠페인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부안군이 적극 추진 중인 ‘5無운동(갑질관행·불친절·부당지시·금품수수·향응접대 근절)’을 적극 홍보하고 청렴행정 실천을 다짐했다.

김성열 변산면장은 “주민들이 직접 친절공무원을 추천하고 격려해 주셔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친절과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나들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총 38면 확보…
주차난 해소 기대

고창군이 고창읍 석교리 아파트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나들목공원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나들목공원 공영주차장장은 고창읍 석교리 9-49번지 일원에 조성됐으며, 1주차장 23면, 2주차장 15면 등 총 3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사업 대상지는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지역 내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차공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창군은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도로변 불법 주차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 주변 교통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김성범 과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석교리 일원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을



<사진=고창군>

지속적으로 확보해 군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등 다양한 주차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 국립의전원, 道 의료계 ‘힘 모아’

남원시, 道·도내 의료기관들과 협약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등 참여
교육인력·임상실습·의료자원 연계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주요 의료기관들과 손잡고 국립의화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의 성공적인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남원시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예수병원과 ‘국립의화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양충모 남원시장,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신종식 예수병원장이 참석해 국립의전원의 설립·운영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의전원의 설립 기반



<사진=남원시>

을 마련하고, 도내 주요 의료기관이 보유한 인력과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향후 교육·임상실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은 △국립의전원의 성공적인 설립 및 안정적인 운영 지원 △국립의전원 교육에 필요한 인력 분야 협력 △임상교육·실습 및 의료자원 연계 △그 밖에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각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협력 범위와 방식 등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주요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립의전원이 안정적인 교육·임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가을철 야외활동·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2(題)

완주군,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총력

완주군이 가을철 농작업과 야외활동 증가에 맞춰 군민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군은 가을철 야외활동 중 진드기와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관내 스마트 경로당의 디지털 기반 시설을 활용해 예방수칙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 홍보 활동을 병행해 농업인 등 야외활동이 잦은 주민을 대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안내 책자(리플릿)를 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

남원시, 가을 행락철 식품접객업소 집중 점검

남원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공립공원, 캠핑장,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광객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 관리 상태 △무신고(등록) 영업에서 제조한 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핫바, 햄버거 등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유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10월부터 동계·풍산면 우선 시행
내년 6월 군청까지 전면 확대

순창군이 오는 10월 1일부터 동계면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민원창구는 점심시간에도 교대근무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을 근거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에 따라 동계면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민원창구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해당 시간에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주민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보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동계면과 풍산면 시범 운영의 성과 분석과 미비점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전제 읍면의 50%로 확대하고, 6월부터는 나머지 읍면과 균형 민원실까지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 복지 ‘청사진’

법정계획 최종보고회·심의 돌입

완주군이 앞으로 4년간 추진할 복지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군은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완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보고회 및 대표협의체 심의회를 열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완주군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아내는 4개년 법정계획이다.

군은 지난 4월 연구용역 착수 이후

전문가 심층 면담과 실무협의체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폭넓게 거쳐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반영했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함께 채우는 복지, 누구나 살고 싶은 완주’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과 지역사회보장 발전이라는 2대 전략체계를 주축으로 총 29개 세부사업과 21개 세부과업을 수립했다.

기존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춰 보완하고 신규 복지 수요에 발맞춘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복지·돌봄, 건강, 자립, 교육·문화, 지역공동체 등 주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실행 방안을 담았다.

이번 대표협의체에서는 최종 용역결과를 공유하고, 제6기 계획의 비전과 전략체계, 세부사업 및 세부과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추진을 강조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군은 대표협의체 심의·의결을 거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아동권리영화제 전국서 174편 접수 ‘성황’

예선 거쳐 31편 본선작 선정
11월 14일 예술춘서 상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주최하는 ‘2026 완주 아동권리영화제’가 작품 공모를 순조롭게 마치고 본격적인 영화제 준비에 나섰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진행된 올해 공모에 전국에서 아동·청소년팀 107편, 가족팀 67편 등 총 174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아동권리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함께 완주 아동권리영화제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한 결과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인공지능(AI) 시대, 아동권리의 빛과 그림자’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던져

급변하는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 환경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권리와 고민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주도적이고 다채롭게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영화계 전문가와 아동 대표로 심사위원단을 꾸렸다. 예선 심사에는 이진경·박예소·박진아 영화감독과 박정환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장이 참여한다.

본선 심사는 오동진 영화평론가, 민성우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장 영화감독, 오성윤 영화감독이 맡는다. 본선 진출작은 오는 11월 14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리는 ‘2026 완주 아동권리영화제’에서 상영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9억 투입

생계지원·의료·연료비 등
9억 2100만원 집행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9월까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총 9억 2,1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이번 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개입하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9월 말 기준 주요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총 4개 분야에 걸쳐 적재적소에 자원이 투입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생계지원은 총 621건에 6억 7,700만 원이 지원돼 위기가구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도왔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시

급함에도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대상자에 대해 2억 1,100만 원을 지원해 건강권을 지켰다. 동절기 및 방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연료비는 215건, 3,300만 원이 집행되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은 2건, 50만 원이 지원됐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누락 없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지원이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체납액 정리목표 2억1,577만원
체납관리단 활용 징수활동 강화

순창군이 과태료와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부서별·회계별로 분산된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해 장기·고질 체납을 줄이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올해 하반기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2억 1,577만여 원으로 설정하고 체납 유형과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내실 계획이다.

특히,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정이익한수금, 부담금, 벌칙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주요 세외수입 체납 과목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징수 실적이 부진한 부서를 대상으로 부군수 주재 징수보고회를 열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별 처리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장기 체납자의 채권 확보 내역과 압류자료를 정비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도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조치를 통해 압류 등 필요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도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납부자 정보 오류와 부과부서의 미등록 내역 등 세외수입 관련 자료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청년 20명 ‘남원 한달살이’ 모집

전북 외 거주 청년·외국인 대상

남원시가 22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2026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에 참여할 청년 20명을 모집한다.

‘남원살이 남원 누비(Namwon NUBI)’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남원에 머무르며 지역의 풍류와 문화, 자연을 직접 누리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슬로건은 ‘한 달을 누비면, 남원이 내 동네가 된다’이다.

시는 생활 여건이 저마다 다른 청년들을 고려해 3가지 맞춤형 유형으로 신청을 받는다. 1유형 3주 살기 코스는 10월 19일~11월 9일까지 21박 22

일 동안 지리산 산내면에서 7박을 보낸 뒤 덕과면으로 옮겨 14박을 머무른다. 2유형 지리산 1주 코스는 10월 19일~10월 26일까지 7박 8일간 산내면 원전체험휴양마을에서 남원의 소리와 지리산을 집중적으로 만난다.

3유형 덕과면 2주 코스는 10월 26일~11월 9일까지 14박 15일을 덕과면 솔바람권역에서 목공·도자기 등 제작 체험과 마을 축제에 참여한다.

모집 대상은 전북자치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45세까지의 청년과 외국인으로, 모두 20명을 선발한다.

참가비는 받지 않으며 신청은 남원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창업보육센터

완주·전주 주민 대상 기술 교육

완주군 창업보육센터가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의 하나로 ‘장비를 활용한 기술교육(시즌2)’을 열고 참여할 교육생을 10월 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센터가 보유한 전문 장비를 주민들이 직접 다루며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이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의 뜻을 살려 완주군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 두 지역 주민의 교류를 넓히고 장비 활용 기회를 함께 나눈다.

교육은 10월 6일부터 과정별로 시작해 11월 5일까지 진행하며, 각 과정은 주 1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5회 운영한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실습 재료비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완주군 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교육생은 완주와 전주를 7대 3 비율로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2일 오후 4시까지이며,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최도성 더한건설 대표
순창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순창군은 28일 ㈜더한건설 최도성 대표가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시에 소재한 ㈜더한건설은 1995년 설립된 건설업체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실천에 꾸준한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 대표는 지난해에도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 다시 한번 기부에 동참하며 순창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줬다.

최도성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순창군에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2년 연속 순창군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최도성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세이브더칠드런 공모 선정
조순가정 50가구 꾸러미 지원

완주군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추진하는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드립스타트 조순가정 50가구에 7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우리금융미래재단 및 ABL생명과 함께 고령 및 건강악화로 생계유지 및 식재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조순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한 행복꾸러미는 가구당 15만 원 상당으로 꾸렸다. 성장기 아동과 어르신의 건강을 돕는 홍삼을 비롯해 전복죽, 갈비탕, 김 등 다양한 간편식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위생용품을 담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 취약계층조부모 가정 아동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양육, 교육, 진로 및 심리지원 등 영역별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물품을 전달받는 조순가정 어르신은 “아이를 키우며 드는 비용도 부담스럽고 끼니를 챙기기도 쉽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 물품을 정성껏 보내주어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박해란 아동친화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온기 가득한 복지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익산시 푸드트럭 참여업체 행사 수익금 일부 성금 전달

익산 미륵사에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푸드트럭 업체들이 축제의 인연을 지역 학생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갔다.

익산시는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익산 미륵사지'에 참여한 푸드트럭 업체들이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탁에는 모닝카페, 금마커피, 컴앤고푸드, 야미따파, 지안푸드, 강푸드, 골목식당, 임실치즈마을 푸드트럭 1·2·3호 등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기간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돌려주자는 데 뜻을 모아 이번 기탁을 마련했다.

전달된 성금은 익산사랑장학재단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진안 마령면 지사협 고독사 예방 '식품꾸러미' 전달

진안군 마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장 이충고, 공공위원장 양상열)는 지난 23일 고독사 예방 및 취약계층 안전확인을 위한 '사랑의 식품꾸러미 전달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및 중장년층 등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고독사 예방사업과 연계한 식품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사업에 참여한 협의체 위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홀로 계신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부확인 및 맞춤형 복지 사업을 통해 고독사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남원시,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빵 나눔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제빵봉사대장정 마무리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이백면 허브앤베인커리 제빵소에서 지속 자원봉사프로그램인 '같이의 가치-함께하면 좋은 세상' 10회기 활동을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제빵 활동을 매개로 함께 호흡하며, 소통과 협력의 장을 넓히고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와 사나래봉사단이 손을 맞잡고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매회 정성을 담아 250개씩 총 2,500개의 빵을 직접 구웠다.

완성된 빵은 남원시 1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일방향적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의 과업 속에서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남원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여러 해 동안 이어져 온 '같이의 가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벽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성숙한 자원봉사 문



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올해 10회기 동안 함께해 주신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와 사나래봉사단, 그리고 모든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누구나 자원봉

사의 주체로 당당히 참여하고 이웃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사회에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세이프틴' 출동

개학기 상가변화가 집중 점검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완주군 이서면 봉지팔취토서관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세이프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이서면 상가 밀집 지역과 변화

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취약 지역과 무인판매 업소를 돌며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및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안내문 부착 여부, 청소년 유해매체물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벌였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우범 지역과 무인판매 업소를 순회하며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스티커 부착 여부 △청소년 유해매체물 노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청소년 보호의식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활동은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고, 완주군청, 완주교육지원청, 완주군청소년문화의 집, 아동음부즈퍼스사무소,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이서청소년문화의 집이 함께 참여해 합동 계도 활동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박현정 센터장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

으로도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남해군 공무직노조, 상호기탁



순창군은 지난 23일 남해군 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 50명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순창군 공무직노동조합과 상호기부금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양 지역 공무직노조 간 교류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양 노조가 각각 300만원을

상호기탁한 데 이어 올해는 각각 500만원으로 기부 규모를 확대해 의미를 더했다.

순창군청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남해군 공무직노조 이장근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6명과 순창군 공무직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향사랑의 뜻을 나누고, 두 지역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장근 지부장은 "이번 상호기부가 두 지역의 인연을 더욱 돈독히 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박경희 정읍시 교통과장 모친상 조의금 일부 장학금 기탁



박경희 정읍시 교통과장(사진)이 지난 23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박 과장은 지난 15일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받은 조의금 중 일부를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을 돕는 데 보태기로 했다. 박 과장은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많은 분들의 위로와 도움을 받았다"며 "그 마음을 의미 있는 곳에 나누고자 조의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기탁된 장학금을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 두꺼비회관, 자원순환과에 설령탕 200그릇 후원

김제시는 두꺼비회관(대표 박옥진)이 지난 23일 따뜻한 사람 나눔을 실천하고자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한 자원순환과 소속 전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설령탕 200그릇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두꺼비회관은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박옥진 두꺼비회관 대표는 "시민들을 위해 매일 깨끗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묵묵히 노력하는 자원순환과 직원들의 모습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든든한 한끼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따뜻한 나눔 문화 실천에 감사드립니다"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윤봉기 기자



완주군 한의사회 의료취약계층에 쌀 300kg 기탁

완주군 한의사회(회장 송기울)가 관내 의료취약지 환자들을 위해 사랑의 쌀 300kg을 완주군에 기탁했다. 기탁된 쌀은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만성질환자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완주군 한의사회는 평소에도 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송기울 회장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 질병과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살피고 지역사회를 밝히는 나눔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 건강을 지키는 데 더해 따뜻한 나눔까지 실천해 주신 완주군 한의사회에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함께 지켜요" 교통 안전수칙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제로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수칙 준수

보행자·운전자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모두를 위한 행복한 엄출 '운전 줄임'

고령자 운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멈춰주세요!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정읍시

지원금부터 상권 혁신까지 민생경제 선순환 이끈다

정읍시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는 민생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올해 주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160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적인 경영비용 지원과 금융 안전망 확충, 정읍 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샘고을시장과 주변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충정로를 정읍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정책의 범위를 개별 점포에서 지역 상권 전체로 넓혀가고 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위기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시민에게는 지역 소비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창출된 소비가 다시 골목상권의 매출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편집자 주)



160억대 맞춤 지원·12% 상품권 소상공인·시민 부담 완화 샘고을시장 80억 투자·충정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경영비용 줄이고 금융 문턱 낮춰 '버틸 힘' 보탠다

시는 매출 감소와 고정비 상승을 동시에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 단계별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으로 4092명에게 총 20억 4600만원을 지급했다.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 신청도 진행한다.

카드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영세 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카드수수료도 지원한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215명이 신청했으며, 시는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해 시중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특례보증과 이자 지원이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 올해 특례보증 대출 규모는 총 125억원으로, 현재까지 413건에 118억원이 지원돼 전체 규모의 94.4%가 소진됐다.

시는 더 많은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한 명당 대출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연 1%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최대 연 3%까지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지원액은 2억 6580만원이다.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도 747건의 가입을 지원했다. 당장의 자금난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위험까지 함께 살피는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 12% 상품권과 공공배달앱, 시민 혜택을 지역 매출로

소상공인 지원의 또 다른 축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시는 올해 정읍사랑상품권을 총 104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높였다.

시민은 월 70만원, 연간 800만원 한도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80억원어치가 판매돼 시민의 가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소비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정읍 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환급 사업을 시행한다.

정읍형 공공배달앱도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보는 지역 소비 장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문 건수는 12만 1199건, 매출액은 33억 56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할인 행사에 1억 5653만원, 5% 환급 혜택에 4482만원가량을 지원했다.

소비자는 할인과 환급 혜택을 받고, 임점업체는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로 온라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시는 앞으로도 이용자 혜택과 가맹점 홍보를 강화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연결할 방침이다.

고물가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6곳을 새로 지정하면서 정읍지역 착한 가격업소는 총 37곳으로 늘었다. 시는 9월부터 지정업소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고 시민 이용을 유도해 서민 물가 안정과 점포 매출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 샘고을시장과 충정로, '찾아오고 머무는 상권'으로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경영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정책이라면 상권 활성화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장기 전략이다.

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샘고을시장과

가을에는 상권 전체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행사장으로 변한다. 9월과 11월 할인 행사, 10월 정다운축제, 하반기 그래피티거리 축제 등을 열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샘보섬' 홍보관을 중심으로 문화 프로그램과 온라인 홍보, 주민 참여 행사도 이어간다. 시설을 정비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방문할 이유와 머물 이유를 함께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의 범위도 넓어졌다. 시는 지난 7월 충정로 일원 6317.78㎡, 78개 점포를 정읍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전통시장 밖에 있는 골목상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각종 상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충정로 상점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확대하고 시민 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 지원, 시민의 지역 소비를 이끄는 생활밀착형 혜택, 상권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환



중앙로·우암로·새암로 일원에 총 80억원을 투입하는 '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4년 차인 올해는 17억 2600만원을 들여 시설·환경 개선, 창업 등 3개 사업과 관광, 체험, 축제, 홍보 분야 12개 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낡은 거리와 점포의 환경을 개선한다. 약 70개 점포의 간판과 고객 이동선을 정비하고, 15개 점포의 영업환경과 3개 점포의 주방을 개선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한다.

빈 점포에는 예비창업자가 입점할 수 있도록 3개 점포를 선정해 한 곳당 최대 6000만원의 내부 공간 정비 비용을 지원한다. 상권의 빈 공간을 새로운 창업과 일자리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상권의 매력력을 높일 지역 특화 콘텐츠도 확충한다. 정읍의 농특산물과 먹거리를 활용한 대표 상품을 개발하고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결한 관광상품과 샘고를 특화여행도 마련해 관광객의 동선을 원도심 상권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관광지와 상권을 연계한 단체여행 상품에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경·콘텐츠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지원금이 한 점포의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고, 상품권과 공공배달앱을 통해 늘어난 소비가 골목상권 전체의 활력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학수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세심하게 추진하고 시민의 소비가 지역 상권의 매출과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민생경제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